

# 동구 학운 2지구 재개발 갈등... '물고 물리는' 법정공방 예고

##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vs 동구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측, 구청 사업 무효 소송 낸 뒤 아파트 건립 계속 추진키로  
청약금 환불 갈등 속 조합원들은 조합추진위 상대로 소송 준비  
구청 "사업 대상지역 변경 가능하나 주민 동의 필수... 지켜볼 것"

광주시 동구 학운 조대부고 인근 미량마을에서 추진됐던 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미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동구간에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피해를 우려한 일부 조합원들도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 vs 아파트 건립 놓고 소송전 임박=1일 광주 동구와 추진위 등에 따르면 미량마을은 동구가 추진하는 '학운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과 학동미량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예정 부지가 겹친 곳이다. <광주일보 7월18일자 7면>

학운 2구역은 지난 13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고 1일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학운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미량마을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인근 등 267세대 4만3095㎡ 부지에 도로 8개 노선(368m), 주차장 3개소(1108㎡), 소공원 2개소(203㎡)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추진위는 해당 지역 세대주 134명 중 1/2 이상(67세대)이 동의할 경우 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9일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환불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까지 계약한 조합원은 284명으로 180명은 4000만원씩을, 70명은 2000만원씩을 조직위에 청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0만원 미만을 지급한 비가입 조합원도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조직위에 지급한 청약금은 86억원(2000만원 미만 비가입 조합원 제외) 이상이다.

추진위는 조합원의 청약금 중 66억원은 토지계약금과 용역(홍보·설계 등)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은 최소 66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추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고시에 대해 협력정치처분과 무효소송을 통해 아파트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동의를 얻어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 부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하겠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추진위는 다만 기존 412세대(부지면적 2만4000㎡)에서 규모를 축소해 280세대 아파트(2만123㎡)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진위 vs 조합원간 청약금 환불 논

## ■광주 학동 미량지구 위치도



고 마찰=추진위는 또 청약금 4000만원을 낸 조합원에 한해 일부(1인당 1000만원씩)를 환불해줄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현재까지 환불을 요청한 조합원은 200명에 달한다.

추진위는 그러나 2000만원을 낸 조합원과 2000만원 미만을 낸 비조합원 등 104명에 대해서는 추후 총회를 통해 환불 절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다수 조합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추진위를 상대로 책임소재를 묻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나 모델하우스 개장 때도 동구가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미 아파트 건립이 안될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 당시에는 미량마을이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이었기 때문에 동구와 협의하면 아파트 건립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상당수 주민에게 주거환경사업 대상지역 변경에 관한 동의를 얻어놓



광주시 동구 학동 '학동미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1일 미량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아파트 신축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동구를 상대로 해당사업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량마을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은 상태로, 앞으로 동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아파트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구청 아파트 건립 부정적=동구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조합추진위 구성 당시부터 주민설명회와 홍보물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 여건

상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알렸다"면서 "추진위 주장대로 주거환경사업 대상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주민의 동의가 필수인 만큼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결성된 추진위는 당시 3만1859㎡ 부지에 526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올해 1월 K건설과 시공 관련 양

해각서를 체결하고 2월 주택홍보관을 여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토지 확보 등이 여의치 않자 지난 6월 412세대 규모로 줄여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조합원을 모으았다. 하지만 동구 사업과 상충되면서 아파트 건립 추진이 지연됐고 지난 21일에는 K건설과 맺었던 양해각서도 해제된 상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어! 차량 주차된게 전날과 다르네?

### 과거 어린이집 실습 대학생들 차량 훔쳐 밤새 타고 갔다

과거에 실습했던 어린이집에서 수차례 차량을 훔쳐 탄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2일 밤 10시 33분께 군산 시내 한 어린이집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구가방(7만원 상당)과 어린이집 차 열쇠를 훔치고, 어린이집 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신분인 이들은 이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

험이 있었다. 차량 열쇠를 훔친 이들은 밤새 차를 타고 다닌 뒤 이른날 일장과 교사들이 출근하기 전에 차량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이날부터 14일 동안 6차례 차량을 훔쳐 군산 시내에서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차량의 주차 모양새가 전날과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을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차를 타고 싶어서 무작정 훔쳤다.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모를 줄 알았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 가습기 피해 인정 못받아도 특별구제 가능

### 태아 피해 기준 마련 9일 시행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이달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태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건강피해 범위에 '태아 피해 인정기준'이 반영된다.

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며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경우 구제계정운용위

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이미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인정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폐 질환' 이외에 올해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건강피해 범위에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희기자 kimyh@연남뉴스

## 육군대위 추락 숨진 채 발견

1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 단지 지상주차장에서 육군 대위 김모(28) 대위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김 대위는 과거 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최근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김 대위는 최근 휴가차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희기자 kimyh@

## 정원 초과 어선 17척 적발

여수해양경찰은 "7월 한 달간 여수시 해상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 17척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9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최대 승선인원 2명인 1.49t 어선에 10배인 20명을 태운 혐의로 선장 A씨를 입건하는 등 한 달간 모두 17척을 적발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딸 친구 몰카 '목사님의 탈선'

○--자신의 집에 사는 딸의 친구의 신체 특정부위를 보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50대 목사가 경찰서행.

○--1일 청주충청경찰에 따르면 목사 A(50)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2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B(여·23)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A씨는 칫솔통에 들어 있는 만년필에 카메라 렌즈가 부착돼 있는 점을 이상히 여긴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범행장면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몰래카메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정보 분석을 의뢰. /연합뉴스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

